

# 강진군, 자연친화공법 깨끗한 물 공급

하천 주변 모래층 활용 생활용수 강변여과수 개발 수돗물 수질 향상 2025년 1월 기본 실시설계 추진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신규 모델 역할

강진군이 최근 2025년 신규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8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8억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하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나섰다.

17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변여과수는 하천 주변의 모래층을 자연 여과막으로 활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뒤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자연의 정화 기능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기술로 기존 수돗물 취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강진군 하천 인근에 수직정 및 관련 기반 시설을 설치해 강변여과수를 안정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하천수의 오염물질이 자연적으로 제거되기 때문에 별도의 화학 처리 없이도 고품질의 생활용수 생산이 가능하다.

이는 수질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강진군은 강변여과수 개발을 통해 수돗물의 수질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기존 취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전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강진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기술 도입에 앞장서며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강진군, 장동 외 4개 지구 대상

강진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각 사업지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합치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와 면적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강진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해 강진읍 장동지구 외 4개 지구, 1147필지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의 기준, 경계 조정에 따른 조정금 정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강진군은 이후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설정 협의,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동진 강진군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불규칙한 모양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이용가치는 높아지고 주민 간 경계분쟁은 해소해 재산권 행사에 기여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 빈집 활용한 1만원 임대 주택 무안군, 'GOOD 입주자' 모집

무안군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임대 GOOD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안군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해 경관을 개선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입주자로 선정되면 보증금 100만원,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무안군은 앞서 무안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접근성,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 빈집 2동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다.

입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세대주는 무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자격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적게나마 빈집으로 인한 경관을 개선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추진상황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과에 따라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 다문화 체험·아나바다 장터 성료 신안군 가족센터, 130여 명 참여

신안군 가족센터가 지난 14일 가족센터 내 중앙로비 홀에서 어린이이를 둔 다문화가족 44가정,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라별 문화 체험행사와 아나바다 장터를 열었다.

17일 신안군에 따르면 '미리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내·외적 요인들로 단절돼 가는 가족 간의 벽을 허물고, 가족의 소중함을 찾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각자 나라별 의상을 입고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며 소통, 가족의 소중함을 공유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아나바다 장터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 전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 복지재단에 전부 기부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문화가족이 신안군에서 한 명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 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위해 더욱더 활발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지난 14일 신안군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1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체험행사와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발생된 수익금 전액은 신안군복지재단에 기부될 예정이다. 신안군 제공

## 목포해경, 연말연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해·육상 공조 선제적 차단

목포해양경찰서가 연말연시를 맞아 속취·음주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1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2025년 1월6일까지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어선, 다중이용선박(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적발대상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며 적발 시 농도에 따라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적발된 음주운항은 39건이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항 17건의 음주시기는 출항 전 10건으로 59%에 해당한다.

이에 해경은 경비함정·파출소·VTS(해상교통관제센터) 등 해·육상 간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 해남군, 섬유질 사료공장 준공 완료... 고품질 사료 공급

해남군 북평리에 해남진도축협 섬유질 사료공장이 들어섰다.

17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준공식을 가진 사료공장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8억2900만원을 투입, 연면적 3928㎡ 규모로 건립됐다.

공장은 관내 조사료를 이용한 양질의 혼합사료를 1일 150톤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해남군과 해남진도축협이 공동으로 육성하고 있는 '해남땅끝한우' 브랜드의 전용사료 등 고품질 사료를 안정적으로 생

산·공급함으로써 한우 농가 경쟁력 향상과 해남한우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산 조사료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 해남군은 전남 최대 면적인 약5000ha의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남군은 매년 6여억원을 투입, 조사료생산지원 및 조사료 장비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해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사료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개최

분재정원, 내년 1월12일까지

신안군은 2025년 1월12일까지 한 달간 '섬 겨울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1004섬 분재정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섬 겨울꽃 축제는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에 피어난 4000만송이의 애기동백꽃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야외에서는 겨울의 추억을 담아 갈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 사진촬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녁노을 미술관에서는 소원편지 쓰기, 동백그림 그리기체험도 함께 진행한다.

에어돔에서는 추위를 녹일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등 카페와 휴식공간을 마련해 쉽고 감동이 함께하는 겨울꽃 축제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축제 이벤트로 빨간색 옷을 착용한 관람객은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한 달간 진행되는 겨울꽃 축제에 오셔서 하늘과 바다, 새하얀 눈 속에 피어난 애기동백과 함께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소원편지를 쓰면서 2025년의 희망을 담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